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한국경제성장사

시험

김낙년 교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 울 대 학 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한국경제성장사

김낙년 교수

시험

01 다음의 설명에서 옳은것은?

5분

① 동아시아 3국(일본, 대만, 한국)의 경제성장이 미국보다 빨라 catch up이 일어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상이다.

② 거센크론에 따르면 19세기 유럽에서 후진성이 클수록 공업의 생산설비나 기업 규모가 더 작고, 생산재보다는 소비재에 더 중점을 둔 공업화가 이루어졌다.

③ 근대의 민법과 같은 제도가 세계로 확산된 것은 혁명, 전쟁, 모방과 함께 식민지 지배라는 경로가 중요하였다.

④ 각국의 1인당 GDP를 각국의 물가수준의 차이를 반영하는 구매력평가지수(PPP)로 나누어 비교하면, 환율로 나누어 비교한 것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정답 ③

해설 동아시아 3국의 미국에 대한 catch up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나타났다. 거센크론에 따르면 후진성이 클수록 ②와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소득을 구매력평가지수(PPP)로 나누어 비교하면 환율로 비교한 것보다 격차가 줄어든다.

02 다음의 설명에서 옳은것은?

5분

① 한국의 고도성장은 투자와 수출이 주도하는 성장 유형을 보였는데, 그러한 특징은 식민지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② 한국의 순상품교역조건은 1970년대 이후 계속 악화되어 왔는데, 수입품인 원유가격이 급등한 반면 IT 제품 등 수출을 주도하는 제품이 생산성 증가가 매우 빨라 그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무역을 통한 이익을 얻지 못했다.

③ 한국은 해방 후 관세 자주권을 회복하면서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였고, 그후 그 수준을 유지해왔다.

④ 한국의 1960-70년대 고도성장기는 선진국과 달리 생산요소 투입증가가 주도하였고 총요소생산성(TFP) 증가가 낮았는데, 그러한 성장의 유형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답 ①

해설 식민기기의 경제성장률은 해방후에 비해 1/2의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투자와 수출이 주도하는 성장 유형이 식민지기에도 나타났다. ②의 수출품의 가격 하락으로 순상품교역조건은 악화되었지만 수출물량이 더 크게 늘어나 소득교역조건은 개선되었다. 해방 후 관세를 크게 올렸지만 점차 관세를 낮추고 개방체제로 돌아갔다. 고도성장기에는 TFP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그후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의 빠른 증가가 한계에 달하고 TFP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선진국의 양상에 접근하고 있다.

03 다음의 설명에서 옳은것은?

5분

① 식민지기에 발행된 지폐인 조선은행권은 일본은행권과 등가로 교환되었으며, 양자 모두 금은을 지불준비로 하는 등 동일한 화폐 제도로 발행되었다.
② 한국은 해방 직후의 혼란과 분단, 6.25전쟁으로 인해 대만보다 인플레가 더욱 극심하였지만 그 후 고도성장기에는 대만보다 물가가 안정되었다.
③ 통화량의 증가는 생산(즉 GDP)를 늘리는 효과와 물가(GDP 디플레이터)를 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생산보다는 물가를 올리는 효과가 더 컸다.
④ 정부 재정의 GDP 대비 비율은 증가되어 왔는데, 조세수입의 증가는 주로 세율인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정답 ③

해설 해방 전 조선은행권은 일본은행권과 달리 주로 일본은행권을 지불준비로 해서 발행되었다. 해방 직후 대만의 인플레가 한국보다 높았지만 고도성장기에는 한국이 대만보다 물가상승이 더 빨랐다. 정부 조세수입의 증가는 세율인상보다 과표가 사실상 고정되어 있어 명목소득의 증가가 곧 증세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04 다음의 설명에서 옳은것은?

5분

①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한 여성이 일생동안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하는데, 조출생률이나 조사망률과 마찬가지로 인구의 구성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② 한국의 인구는 2020년에 정점에 달한 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앞으로도 계속 5천만 명의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③ 통상 경제가 발전하면 자영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갖는데, 한국은 경제발전 수준에 비추어 자영업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④ 산업별로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를 비교해 보면 현재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순으로 생산성이 더 높다.

정답 ③

해설 합계출산율은 조출생률이나 조사망률과 달리 인구 구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국가간 비교에 적합하다. 우리나라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여 2070년에는 4천만명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성은 근래에는 제조업이 서비스업을 크게 능가하였다.

05 다음의 설명에서 옳은것은?

5분

① 한국의 근로시간은 해방 후 계속 축소되어 왔지만, 현재에도 연간 2000시간을 넘어 선진국에 비해 긴 편이다.
② 금융자산은 빠르게 비중을 높여 현재에는 실물자산의 규모를 능가하였다.
③ 한국의 15세의 기대여명은 선진국(프랑스, 미국, 일본)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왔지만, 아직도 이들 국가의 수준에 달하지 못했다.
④ 60대의 계층간 사망률 격차가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더 크게 벌어졌다. 다만 고령으로 갈수록 계층간 차이가 작아지는데, 남자의 계층간 사망률 격차가 여자보다 더 컸다.

정답 ④

해설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고도성장기에는 증가하다가 그 후 감소하였다. 금융자산은 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났지만 그 규모가 아직은 실물자산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의 기대여명은 현재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거나 이를 능가하였다.

06 다음의 설명에서 옳은것은?

5분

① 개항기는 불평등조약으로 개방이 강요되었으며 조선이 쌀과 콩과 같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면제품을 수입하였는데, 교역조건은 조선에 불리하였다.
② 조선의 식민지정책은 조선총독부가 아니라 본국 정부의 주도로 시행되었다.
③ 조선민사령(1912년)에 의해 일본의 민법이 조선에 시행되었으며,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권(私權)은 조선인과 일본인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④ 토지조사사업에서는 자신의 토지를 일정 기간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지만 그러한 사실을 몰랐거나 반발하여 신고하지 않은 자들이 많았고 그러한 토지는 총독부로 귀속되었다.

정답 ③

해설 개항기에는 조선이 쌀 콩 등의 농산물을 수출하고 면직물 등의 공산품을 수입하였는데 교역조건은 조선에 유리하게 변했다. 식민지 정책의 사령탑은 본국 정부가 아니라 조선총독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토지조사사업에서는 거의 모든 토지가 신고되었고, 일부의 국유지 분쟁을 제외하면 신고한대로 소유권이 인정되었다.

07 다음의 설명에서 옳은것은?

5분

① 조선은 쌀이 증산된 것보다 수출이 더 빨리 늘어난 결과 1인당 쌀소비가 줄었는데, 이것은 조선인의 생활수준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② 한국은 해방 후 지역통합이 붕괴되면서 독자의 통화와 환율, 무역과 관세 제도를 갖게 되었지만, 물가와 환율의 급격한 변동과 개방체제의 후퇴를 수반하였다.
③ 남한의 농지개혁은 유상몰수와 유상분배의 방식을 취했고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와 무상분배의 방식으로 달랐지만, 모두 농민이 분배된 농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이 인정되었다.
④ 식민지기에 시행되었던 법령은 해방 후 남북한 모두 대부분 폐기되었다.

정답 ②

해설 해방 전에 쌀의 증산과 수출이 늘어난 것은 농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다만 그 혜택이 지주에게 더 많아 돌아갔다. 당시 농민의 생활수준이 낮았던 것은 쌀의 수출 때문이 아니고 생산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농민이 분배된 농지를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상속할 수 없었으므로 완전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식민지기에 시행되었던 법령이 해방 후 폐기된 것은 북한이며 남한은 그렇지 않다.

08 다음의 설명에서 옳은것은?

5분

①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당초부터 공산품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을 세우고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② 한일수교 이후 방대한 규모의 대일 무역적자 구조가 고착되었는데, 이것은 한국경제가 일본과의 무역에서 이득을 얻지 못하고 일본에 종속되어 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③ 박정희 정부는 노동운동을 탄압하였으며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억제하여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였다.

④ 중화학공업은 초기에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며, 규모가 클수록 단가를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좁은 국내시장에만 의존해서는 경제성을 가질 수 없고 처음부터 해외시장을 겨냥한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었다.

정답 ④

해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공산품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추구한 것은 아니었고 1964년에 당초의 계획이 수정되었다. 대일무역의 적자구조는 한국이 일본의 기계와 부품을 수입하여 그 생산물을 미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가공무역형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높은 수출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노동운동을 탄압하였지만 임금을 규제하지 않았고 실질임금 증가율은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비슷하였다.

09 다음의 설명에서 옳은것은?

5분

① 전두환 정부는 박정희 정부과는 달리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전환하였지만 물가안정을 정착시키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② 플라자 합의(1985년) 이후 한국은 3저호황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구가한 반면, 일본은 정책실패로 자산가격이 급등했다가 붕괴한 후 “잃어버린 20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0으로 떨어져 한일간 1인당 GDP 격차가 급속히 좁혀졌다.
③ 1980년대 이후 외환위기까지는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높았지만, 임금격차도 빠르게 확대되었다.
④ 노태우 정부는 경기도에 신도시 건설을 포함하여 전국에 2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였지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는 못했다.

정답 ②

해설 전두환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1980년대 이후 외환위기 때까지는 임금격차가 빠르게 줄어든 시기였다. 노태우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은 치솟던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10 다음의 설명에서 옳은것은?

5분

①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고 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가 구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이것이 무리해서라도 규모를 확대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고, 외환위기의 한 요인이 되었다.

② 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보면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비중은 줄곧 커져왔으며, 정규직과의 소득격차도 계속 확대되어 왔다.

③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중 노동의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이후 하락해 왔으며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더욱 낮아졌다.

④ 한국은 서유럽에 비해 소득재분배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오지만, 현금소득에서는 물론 의료나 교육과 같은 현물서비스의 재분배에서도 격차가 컸다.

정답 ①

해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났지만, 그후 그 비중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10년 이후 상승으로 돌아섰고 코로나 사태로 더욱 높아졌다. 한국은 연금제도의 도입이 늦어 서유럽보다 현금소득의 재분배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오지만 현물서비스에서는 그렇지 않다.